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Monthly Newsletter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CEO 승계계획 프로세스」외 12월 동향

#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Board Practices Quarterly 12월호, CEO succession planning processes

## CEO 승계계획 프로세스

- ▶ CEO 승계계획은 이사회와 주요 책임 사안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회사의 대리인으로 인식되어, 필연적으로 회사의 전략적 방향, 운영 및 평판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임
- ▶ CEO 승계실패로 인한 비용과 CEO 교체율의 급격한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계획된 혹은 예상치 못한 리더십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견고하고 공식화된 프로세스와 실무관행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함
- ▶ 본 보고서는 102개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 거버넌스 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베이 결과에 기반함
- ▶ 서베이 주요 결과

### 1. 귀사가 보유한 승계계획은 무엇입니까?

- 응답자의 67%는 계획된 퇴임을 대비한 CEO 승계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80%는 예상치 못한 퇴임을 대비한 CEO 승계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 CEO 승계계획이 공식화/문서화되어 있습니까?

- 대부분의 회사는 공식화 또는 문서화된 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퇴임에 대한 계획은 대형 및 중형 상장법인 각각 72%, 90% 보유하는데 비해 계획된 퇴임에 대한 승계계획은 대형 및 중형 상장법인 각각 53%, 55%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됨

### 3. 다음 중 (긴급상황이 아닌) 계획된 CEO 승계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 대다수의 응답자는 '조직내부자를 잠재적 CEO 후임자로 지명' 및 '이사회위원회에 대한 절차가 포함된다'고 응답
-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내부 후보자를 위한 전문성 개발, 준비계획' 및 '후보자 기준'을 포함한다고 응답

### 4. CEO 승계계획이 이사회 및 담당 위원회에서 얼마나 자주 검토됩니까?

- 응답자의 72%는 CEO 승계계획이 연 1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응답

### 5. 귀사의 CEO 승계계획에 대한 주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응답자의 56%는 이사회가 CEO 승계계획에 대한 주요 책임을 담당한다고 응답

### 6. CEO, 이사회 및/또는 담당 위원회가 CEO 승계계획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CEO, 이사회, 위원회 및 기타 경영진의 참여 수준은 시가총액별로 다르며, 참여방법으로 계획 수립·검토·승인, 후보자 프로필 발굴, 후보자 식별·인터뷰, 후임자 및 서치펌 선정 등이 있음

다운로드



QR 코드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The Wall Street Journal' article - 9 Steps to Help Uncover, Assess Internal Fraud Risk

## 부정 리스크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9가지 방법

➤ 딜로이트 글로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정은 경영진들 사이에서 최대 우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정 리스크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9가지 방법'을 소개함

\* 다양한 산업분야의 임원 73명의 의견 수록

- 부정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우려사항은 '윤리·컴플라이언스 규정 위반 행위'(76%), '법규 미준수(70%) 및 '도난·횡령(51%)'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상당수는 '부인문화(Denial Culture)' 즉, '자신의 조직에서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부정 리스크 관리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목함
- 리더들은 전략적인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견고한 '부정 리스크 평가(Fraud Risk Assessment, FRA)' 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구분	내용
1	체크리스트 방식의 절차나 재무보고 통제에만 집중하는 한정된 노력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부정 리스크 평가를 수행함
2	'부인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이해관계자 교육을 통해 부정 리스크와 회사의 부정 예방·적발·조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
3	부정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에는 적절하고 충분한 인력이 참여하도록 함
4	기업의 전반적인 부정 리스크 평가의 일환으로 부정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 산업 내 사례 및 최신 동향을 고려함
5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식별함
6	부정 리스크 식별 시 다양한 부정계획과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통제효과를 테스트함
7	부정 리스크 평가를 통해 부정행위를 통제하고 대응계획을 실행함
8	주기적으로 평가를 재검토하여 내·외부요인에 대응함
9	결과를 경영진 및 지배기구에 효과적으로 전달함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13 (수) 금융위원회

## 외부감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2.12) 및 외부감사규정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12.13)

- ▶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공포일인 12월 19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지정감사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지난 6월에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임
- ▶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의 주요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 1.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5년 유예

- 코로나19 상황 및 최근의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연기함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4년 → '29년, 자산 5천억원 미만: '25년 → '30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당초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하였음

### 2.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고려함
-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 종목 지정'은 유지되어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사유로 '24회계연도에 이미 감사인 지정 통지가 되었더라도 해당 지정 효력은 상실함

### 3.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중립성 강화

-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축소(4명 → 3명)하고 추천기관을 금감원으로 변경함
-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과 금감원 인원만으로 회의 개최 및 결의 가능\*하다는 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임

\* 심의위원회는 전체 2/3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4.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중립적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부당행위를 한 지정감사인이 조정 거부 시 지정취소 건의까지 가능

### 5. 거래소의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지원

-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이 외부기간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 요구,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감사인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음
- 소규모 상장사가 요청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6.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자료제출 거부 시 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제도 보완 및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부과형평성을 제고함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8 (금) 금융감독원

## 내년 말부터 금융사 임원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 ▶ 12월 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금융사 임원은 소관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
- ▶ 관련 규율이 '형식·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금번 개정으로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



###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

-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 함으로써 금융사가 스스로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 금융사 대표이사(CEO)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없이 마련해야 하며, 작성된 책무구조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사는 임원이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정직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함

<표1>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점

은행	금융지주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 이상 운용자산 20조 이상 종합투자회사	자산총액 5조 이상	자산총액 5조 이상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자산총액 5조 미만 운용자산 20조 미만	자산총액 5조 미만	자산총액 5조 미만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

1단계(법 시행후 6개월전까지 제출) → 2단계 (1년) → 3단계(5년이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함
- 특히,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되며, 금융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이사회내부통제역할명확화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역할이 명확화 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 관리의무위반시 제재 및 면책기준

-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통제기준마련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신분 제재를 부과하나, 평소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 금융당국은 금융업과 함께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을 위한 모범사례 전파 등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임

- ▶ 금번 개정으로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금융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됨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2.6 (수) 금융감독원

###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함
  - 상법 유권해석·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12월 결산 상장사(유가·코스닥) 2,267사 중 636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하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동 상장사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할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표1>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단위: 사, %)

유가			코스닥			합계		
전체	정관정비	비율	전체	정관정비	비율	전체	정관정비	비율
780	185	23.7	1,487	451	30.3	2,267	636	28.1

\* ① '23년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회사 및  
 ② 기존 정관을 활용하여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한 회사를 합산한 수치

-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3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할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것이 권고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개정 등을 통해 '先배당액 확정, 後배당기준일 지정'에 동참할 것이 당부됨
-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할 예정임

다운로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1.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2.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3.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4.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5.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6.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7.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8.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9.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10.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30 (목) 금융감독원

##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식공시 모범사례 마련

- ▶ 전기오류수정 관련 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에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공시지침이 없어 기업별 공시방식이 다양하고 미비한 경우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은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함
- ▶ 정보이용자들은 전기오류 발생원인에 대한 이해 및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업들은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 모범사례 주요 내용

### 1. 전기오류의 성격 관련 기재사항 구체화

- 공시의무가 있는 전기오류의 성격을 기재하지 않거나, 오류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기업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 전기오류의 성격을 재무제표 주석에 상세히 공시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별로 구분된 표준 서식을 마련함

오류 계정과목	오류로 인해 영향받는 재무제표 계정과목 공시, 오류 발생 경위와 연관 계정과목 모두 기재
발생 경위	오류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의 구체적 기재, 유형이 다른 경우 항목별로 구분 기재
오류의 내용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별로 구분 공시 및 각 사업연도의 영향 구분 기재
관련 기준서	오류 발생 계정과목 관련하여 연관된 기준서 및 문단 공시

### 2. 여러 유형의 오류수정 항목에 대한 금액적 효과 구분 표시

- 일부 기업들은 여러 유형의 오류수정 금액적 효과(영향)를 구분 표시하지 않고 합산 공시하여 유형별 세부 수정금액 파악이 곤란함
- 전기오류항목이 여러 유형일 경우 각 전기오류항목에 대한 금액적 효과를 구분 표시(㉠㉡)하도록 개선함
  - 금액적 효과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합산하여 표시 가능하나 전기오류의 성격은 모두 각각 기술 필요
  - 관련 수정금액은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계정과목별 금액을 기재하며, 여러 유형의 오류 발생시 각각 구분(㉠㉡)하여 기재 필요

### 3. 오류수정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주식번호 연계 표시

- 재무제표 재작성시 연계된 다른 주식도 수정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재작성 사실만 공시하여 이해도가 저하됨
-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라 다른 관련 주식이 수정될 경우 해당 주식번호를 각 계정과목별로 공시하도록 모범사례 서식에 추가함
  - 관련주식은 오류수정의 영향을 받는 재작성된 계정과목과 관련된 주식번호를 서식에 표시토록 함

- ▶ '23사업연도부터 기업이 전기오류수정 모범사례를 활용하여 주식공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내용을 안내하고 모범사례를 작성지침에 반영하여 기업이 참고토록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28 (화)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 ▶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업권에서 지속적인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41개 보험회사의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함(11.28)
- ▶ '18년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5억원으로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표1> 보험회사 금융사고 보고 현황('18년~'23.06)

(단위: 건, 억원)

구분		'18	'19	'20	'21	'22	'23 상반기	합계	연평균
생보사	건수	9	8	10	7	4	2	40	7.3
	금액	25.6	8.4	21.5	9.5	2.6	2.1	69.6	12.7
손보사	건수	7	7	9	10	5	2	40	7.3
	금액	9.7	256.3	122.4	18.0	10.8	0.2	417.4	75.9
합계	건수	16	15	19	17	9	4	80	14.5
	금액	35.3	264.7	143.9	27.5	13.4	2.3	487.0	88.5

- ▶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이고, 이 중 전문인력\*은 72.0% 수준임  
\* 법률(19.4%), 재무·투자(14.1%), IT(4.6%) 등
  - 준법감시업무에서 일부 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미흡사항에대하여제도개선등의조치가이루어지지않는등문제점이확인됨
- ▶ 금융감독원은 다음의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향후 위법행위 방조, 은폐, 내부통제 업무 소홀시 감사, 준법감시인 등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임

####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

- 회사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 담당(전문)인력 비율을 업계 등 논의 통해 정하고 단계적 추진
-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병행, 내부통제 미준수시 페널티 부여, 개선요구 절차 마련

####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순환근무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 강화
명령휴가	대상·점검방법을 내규에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내부고발	신고의무위반시 조치의 합리적 개선 및 내부고발의 건설적인 활성화를 위한 내부통제 문화 조성
예방지침	직급·업무별 역할·책임 체계화, 사고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 포함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

- ▶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개선 필요사항을 안내하여 사고 유발요인을 자체점검하고 취약사항은 신속 개선토록 조치하는 한편,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하여 보험업권에 맞는 사고예방 모범규준을 '24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27 (월) 금융감독원

##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

▶ 금융감독원은 '22년도 지적사례 18건을 공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2년간('11년~'22년) 지적사례 총 141건을 공개함\*

\*금년부터는 감리 지적사례 뿐 아니라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오류 등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도 포함하여 공개

- '22년도 심사·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3건), 투자주식 평가 오류(4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허위) 계상(3건),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2건) 등으로 구성됨

<표1>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단위: 건)

공개 시기	'23.11월	'22.6월	'21.12월	'21.6월	'20.8월	'19.12월	합계	
공개 대상 연도	'22년	'21년	'11년~'14년	'20년	'15년~'17년	'18년~'19년	'11년~'22년	
지적 유형	매출·매출원가	3	4	4	5	12	4	32
	투자주식	4	3	4	5	6	4	26
	재고, 유·무형자산	3	3	-	1	5	7	19
	기타자산 부채	5	2	8	2	5	7	29
	주식미기재 등	3	3	11	2	9	7	35
공개사례 수(합계)	18	15	27	15	37	29	141	

-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예시 (요약)

구분	내용
매출·매출원가	• A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후에도 동 제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관리·통제하고 있었음에도, 판매한 시점이 아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
재고자산	• B사는 판매 목적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 경과로 판매가 불가능해짐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 C사는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
이연법인세부채	• D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해당 처분·청산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
특수관계자 주식 미기재	• E사는 거래처인 F사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과 가까운 가족(乙) 및 회사 임원(丙)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F사와의 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식에 미기재

다운로드



QR 코드



별첨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24 (금) 한국ESG기준원

### 2023년 한국ESG기준원(KCGS)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 한국ESG기준원은 11월 24일, 한국거래소에서 '2023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함

- ESG기준위원회는 ESG 평가결과 상위기업에 해당하는 '우수기업 등의 후보기업' 중 심의를 거쳐 ESG 개선활동에 우수한성과를 보인 기업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함

▶ 지배구조 우수기업 부문 및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구분	일반상장사	금융사
대상	-	-
최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케이티앤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li> </ul>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K디앤디(주)</li> <li>씨제이프레시웨이(주) (코스닥)</li> <li>(주)삼표시멘트 (코스닥/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캐피탈(주)</li> <li>(주)KB국민카드</li> </ul>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회사명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사유
일반 상장사	(주)케이티앤지	건전한 이사회 운영을 바탕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가 회사 전략 수립과 실행에 적극 관여하며 견제·감독기능 충실히 이행</li> <li>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하여 최고경영자 승계계획을 수립, 정기적인 후보군 관리</li> </ul>
	SK 디앤디(주)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 관행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개별 사외이사 평가 실시, 지배구조 정보공개 확대 등</li> <li>보상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으로 경영성과와 연동된 이사 보수 지급을 위해 노력</li> </ul>
	씨제이 프레시웨이(주)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 내 우수 지배구조 관행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자산규모 대비 선도적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다양성 제고</li> <li>사외이사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및 이사회 전문성 제고 노력</li> </ul>
	(주)삼표시멘트	이사회 운영 관행 개선, 지배구조 정보 공개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평가 도입, 적극적인 정보공개 노력 (ESG 등급 등 홈페이지 공개)</li> <li>이사회 승계관행 개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등)</li> </ul>
금융사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주)	전문성이 높은 이사회, 지주회사와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주사·자회사 이사회 간 적절한 역할분배를 통해 그룹사 간 조화의 균형 구축</li> <li>체계적·효율적인 ESG 거버넌스 확립 및 효과적인 ESG 경영활동 관리감독</li> </ul>
	현대 캐피탈(주)	건전한 이사회 활동과 이사회 중심의 내부통제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활동·교육, 사외이사 지원개선 등 건전한 이사회 운영관행 유지</li> <li>감사위원회·내부통제기구의 독립성 등 건전한 내부통제 운영</li> </ul>
	(주)KB 국민카드	효과적인 ESG 경영활동을 위한 ESG 거버넌스 정비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리스크를 경영전략·내부통제에 체계적 반영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노력</li> <li>ESG 성과지표 마련 등 지속가능경영을 유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li> </ul>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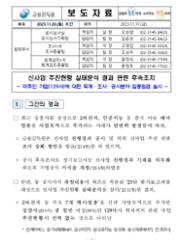
2023.11.20 (월) 금융감독원

###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 결과 관련 후속조치

- ▶ 금융감독원이 '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23.11월)한 결과 2차전지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사 중 절반 이상인 129사(55%)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① 메타버스, ② 가상화폐·NFT, ③ 2차전지, ④ 인공지능, ⑤ 로봇, ⑥ 신재생에너지, ⑦ 코로나
- ▶ 미추진 기업(129사)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성

구분	내용
회계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추진 기업은 다년간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으며, 횡령·감사의견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 고위험 종목이 다수를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러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해지,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부적절한 회계처리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li> </ul> </li> </ul>
불공정거래 의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CB전환·주식 매도 등의 부정거래 혐의 의심 기업이 일부 발견</li> <li>• 그 외 기업도 역량, 타당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보여주기식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불공정거래 연계 개연성도 상존</li> </ul>
상습 공시위반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추진 기업 중 공시위반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이 25%(31사)이며,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 관련 '23년 반기보고서 중점 점검에서도 기재 미흡 회사 비율이 65%(84사)에 이르는 등 공시 충실도가 크게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 과태료, 경고, 증권발행제한조치 등</li> </ul> </li> </ul>
빈번한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CB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21년~'23년 6월말 기준 전체의 74%(95사)임</li> <li>•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496억원(횡수: 평균 4회, 주로 사모)으로 상장사 전체 평균(254억원, 0.9회)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신사업 추진 명목으로 자금조달 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 유용할 우려도 있음</li> </ul>

다운로드



QR 코드



- ▶ (회계감리 1·2국) 미추진 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역량 집중 및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 예정임
- ▶ (조사1~3국)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사업진행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점검 및 필요시 철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 (공시심사실)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되도록 하는 등 중점 심사할 예정임

#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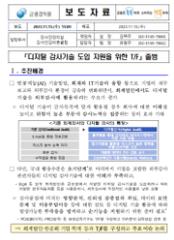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15 (수) 금융감독원

##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을 위한 TF 출범

- 인공지능(AI) 기술발달, 회계와 IT기술의 융합 등으로 기업의 재무 보고와 외부감사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회계법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외부감사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함
  - 디지털 기술이 감사목적에 맞게 활용될 경우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이 높은 부문에 감사노력을 집중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국내 활용수준은 초기단계\*로 아직까지 기업을 포함한 외부감사 관련자들의 디지털 감사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 \* Big4 등 일부 회계법인은 글로벌·자체개발 툴을 사용중이나, 외부감사에 직접적인 사용률은 낮은 상황
-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순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여 회계법인·한공화·기업·학계 등과 T/F를 구성하고 주요이슈를 논의함
- 주요 논의과제

다운로드



QR 코드



1. 현황·영향분석 및 감독이슈 점검	
현황 및 영향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회계법인이 현재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 현황 및 글로벌회계법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사례 분석</li> <li>•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li> </ul>
신뢰성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디지털 기술의 알고리즘과 해당 알고리즘의 적합성 검증 방법·절차 검토</li> </ul>
대용량 데이터 공유 및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감사에 필요한 기업정보의 감사인 공유 시스템 마련 및 이에 따른 데이터 보안 방안</li> </ul>
감사절차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증거 및 감사 과정 등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등 개정 필요사항 검토</li> </ul> <p>* 수집하는 감사증거의 형태, 감사증거 검증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범위 등</p>
2.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지원 방안 마련	
회계법인간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과 중소형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중소형 회계법인 지원방안 등 마련</li> </ul>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감사기술을 이해·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방안</li> </ul>
비용부담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감사툴의 개발·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방법 등</li> </ul>

- 금융감독원은 초기단계인 디지털 감사기술이 활성화되어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T/F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회계투명성

- 금감원, 전기오류수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편의성 회계 투명성 제고 기대” [이투데이]
- 이복현, “투명성 잃으면 회사 잃을 수 있단 맘으로 자산운용사 운용해야” [뉴시스1]
- 노조 91% 회계 공시 참여... 투명성 강화 [세계일보]
- 한국감사인연합회, 7일 제5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 개최 [이데일리]
-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ESG 공시는 세계적 추세...선제적 인프라 구축 필요” [조선비즈]
- 회계 투명성 높인다...금감원, 내달 1일 설명회 [이데일리]



## 부정행위방지

- 금융당국, 이번엔 보험사 불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하라” [중앙일보]
- 금감원, “불법공매도 내부통제 시스템, 기관 스스로 갖춰야” [파이낸셜 뉴스]
- 보험사 금융사고 대책 여전히 미흡, 금감원 “준법감시 강화해야” [뉴시스]
- 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8건 공개 [한국세정신문]
- 실체 없는 신사업 내세운 기업들...금감원, 분식회계 여부 심사 [힌겨레]
- 내년 자본시장 화두는 ‘내부통제’...금융당국 잇단 경고에 증권사 긴장 [아시아경제]
- “코인 시세 조종과 불공정 거래 막는다”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 [블록미디어]



## 규제 동향

- “전자 주주총회 도입”...법무부 상법개정안 국회 제출 [뉴시스]
- 금융위 “ESG 공시기준, 내년 1분기 중 구체화... 기후 우선 검토” [세계일보]
- 금융사고에 CEO 책임 묻는다...‘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이코노미스트]
- 보험사 손해사정업무 50% 이상 위탁하면 이사회 보고한다 [파이낸셜 뉴스]
- 금감원, 스팩 고평가 우려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서울파이낸스]



## M&A

- IFRS17에 커진 불확실성...올해 보험사 M&A ‘0건’ [이투데이]
- 토종 OTT 플랫폼 티빙 웨이브 합친다...국내 시장 M&A 급물살 타나 [서울경제]
- 제약사, M&A로 사업다각화... 오너 위기 돌파 시험대 [뉴스토마토]
- 의지 가득했던 금융지주 M&A...결국 올해도 빈손으로 마무리 [뉴스투데이]
- 공개매수 목적, 적대적 M&A 쑥 늘었다 [화이트페이퍼]
- 아모레퍼시픽-LG 생활건강, M&A로 해외 사업 돌파구 모색 [여성소비자신문]

#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 코스피 상장사, 올해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2.3% [뉴시스]
- “지배구조 선진화 위한 결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 EV이사회 의장 사임 [이코노믹리뷰]
- 연성규범 통한 지배구조 개선...가이드라인·모범규준 점검 필요 [쿠키뉴스]
- 지배구조 정상화 vs 적대적 M&A...MBK가 부른 ‘행동주의 논쟁’ [문화일보]
- 창립 10년 빚쟁이 IPO 추진...수수료 제로,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나선다 [중앙일보]
- 연내 상장 불발, 11번가, 지배구조 바뀔까 [시사위크]
- 초록빔미디어 최대주주, 지분 공개매각 결정...지배구조 개선 [연합뉴스]
- 농심, ‘사외이사 리스크 일단락’ 지배구조 두 계단 상승 [더벨]
- 주주제안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뚜렷 [내일신문]
- 중흥그룹 핵심 중흥토건 지배구조 정리 박차 [뉴스웨이]



## 이사회·감사위원회

- 코스피 상장사 주주권리 보장 여전히 미흡 [비즈워치]
- SK 최태원 회장, 의사결정 위한 이사회 의 균형적 경영감독 체제 강조 [위클리피플]
- 노르웨이, 상장사 이사회 여성 비율 40% 이상...법으로 의무화 [머니투데이]
- “이사회석은 필수” ...경영참여형 투자 늘리는 글로벌 VC [이데일리]
-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 예정..CEO 선임절차 논의 [민주신문]
- 태광그룹, 환경경영·사회적 책임경영·이사회 중심 경영 힘쓴다 [SRE타임스]
- 반복되는 사이버공격... 이사회 차원의 인식 개선 필요 [딜라이트닷넷]



## 한국 딜로이트 그룹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기업지배기구인사이트 제4호 발간, 금융사책무구조도, ‘개선안 마련해야’ [조세일보]
- 딜로이트 안진, 콜로세움과 초연결 물류망 구축 협력 [매일경제]
- “CBAM에 대응하려면”...딜로이트 안진, 전담팀 출범 [파이낸셜뉴스]
- '교보생명 풋잡선 분쟁' 안진·어피너티 대법 무죄 확정 [한국경제]
- 딜로이트, “2024년 AI 반도체 시장규모 400억 달러 이를 것” [IT 조선]
- 한국 딜로이트 그룹, ‘COP28 어젠다’ 국문 리포트 발간 [글로벌이코노믹]
- 딜로이트 안진, 코트라와 국내 소부장 대상 ‘글로벌 공급망 포럼’ 성료... [메트로신문]

# IV. 주요 행사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4호 발간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지난 11월 30일,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4호(계간지)를 발간하였으며, 금번 4회차 발간으로 간행 1주년을 맞이함

- 전문가 기고 섹션은 유승원 고려대 교수의 '신외부감사법 시행의 역할과 평가'를, 장정애 아주대 교수의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의무' 관련 칼럼을 수록하였으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 김세정 시니어 매니저가 다룬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금융권의 관심이 한층 높아진 책무구조도 관련 주제를 수록함
- CCG 아젠다 섹션은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를 주제로 기업의 부정조사 대응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나 발생시 지속가능경영에 치명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감사(위원회)의 사전예방 차원의 절차수립과 성실한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본 보고서가 널리 알려져 국내 기업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저평가된 국내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다운로드



카드뉴스

QR 코드



구분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4호 목차
I. 전문가 기고	① 신외부감사법 시행의 역할과 평가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유승원 교수 ②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의무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정애 교수 ③ 금융사 책무구조도 개요 및 내부통제 방향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자문본부 김세정 Senior Manager
II. CCG 아젠다	① 이사회와 전환 이니셔티브 : 전략은 시작에 불과하다 ②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
III.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1-2022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IV. 주요 규제 동향	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②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진행 실태분석 결과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 마련
V. FAQ	① 금융사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② 사외이사의 책임

## IV. 주요 행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설명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및 자금관련 부정사례 대응방안

구분	상세
일시	2023년 12월 19일 (화) 오후 14:00 ~ 16:10
장소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지하1층)
상세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강좌(30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연결 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Scoping)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오현경 금융감독원 조사역)</li> <li>2강좌(40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관련 실무 서식 및 모범 통제 활동 사례 (정현 안진회계법인 파트너)</li> <li>3강좌(40분): 자금관련 부정사례 및 대응방안 (이승영 안진회계법인 수석위원)</li> </ul>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관련 모범기준이 이관되면서 새롭게 제정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등에 대한 주요 내용 소개와 자금관련 부정사례 및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상장회사 실무담당자 등의 이해도 제고와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명회 개최</li> </ul>
강의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명회 종료 후 업로드 예정</li> </ul>

자료다운

QR 코드



## IV. 주요 행사

### Upcoming events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회계학회

###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후보자 추천 및 지원 안내

구분	설명
마감일	2023년 12월 21일(목)까지
접수처	학회 이메일 ( <a href="mailto:kaa363@chol.com">kaa363@chol.com</a> / <a href="mailto:kaa363@naver.com">kaa363@naver.com</a> )
추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보자 추천서(각기 다른 국내대학 현직 교수 3인 이상의 추천 필요)</li> <li>이력서를 학회 이메일로 제출</li> </ul>
지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진 학술상 Honors Award(공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투명성 확보' 또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관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향후에도 해당 분야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진 학자</li> </ul> </li> <li>안진 학술상 Emerging Scholar Award(신진학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사학위 수여일이 선발공고일까지 5년 이내인 학자 중 '회계투명성 확보' 또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관 분야에서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도 해당 분야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진학자</li> </ul> </li> </ul>
선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위원회 회의에서 Honors Award(공로상) 분야 1인</li> <li>Emerging Scholar Award(신진학자상) 분야 1인 선정</li> </ul>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회계학회는 딜로이트 안진 후원으로 올해부터 새로이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이하 안진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고자 함</li> <li>'23년 12월 4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안진 학술상" 선정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규정을 참조하시어 취지에 맞는 훌륭한 분을 추천 또는 직접 지원 바람</li> </ul>

공고보기

QR 코드



## IV. 주요 행사

### Upcoming events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 [웨비나] 2024년 미국 경제 전망: 미국이 재채기하면 세계도 감기에 걸리는가?

구분	상세
일시	2024년 1월 11일 (목) 오전 1: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 비즈니스 리더 및 경제학자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난해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 인플레이션 압력, 계속되는 금리 인상을 경험함에 따라 2024년 미국 경제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지, 이것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할 예정임</li><li>• 미국 내외에 거점을 둔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이사회는 2024년을 앞두고 어떤 정보와 지식을 갖춰야 하는지,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와 총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고자 함</li></ul>

신청하기

QR 코드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 [웨비나] 생성형 AI: 이사회가 지금 알아야 할 사항

구분	상세
일시	2024년 2월 8일 (목) 오전 1: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 비즈니스 리더 및 기술 전문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생성형 AI가 기존 AI 접근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선도 기업들이 혁신과 경쟁력 증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임</li><li>• 'AI 확장과 윤리적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방법'은 오늘날 이사회에의 큰 과제임</li><li>• 생성형 AI의 미래와 이사회가 이를 어떻게 최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임</li></ul>

신청하기

QR 코드



## IV. 주요 행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설명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li> <li>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li> <li>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li> <li>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li> <li>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li> <li>6. 요약</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li> <li>•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li> </ul>

동영상 보기

QR 코드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hansukim@deloitte.com](mailto:hansukim@deloitte.com)



##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hyunjeong@deloitte.com](mailto:hyunjeong@deloitte.com)



##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hbkim@deloitte.com](mailto:hbkim@deloitte.com)



##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junoh@deloitte.com](mailto:junoh@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krccg@deloitte.com](mailto:krccg@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 채널]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